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Stress and Military Adjustment of Soldiers

김세원, 신창식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e-Won Kim(ksewone@hanmail.net), Chang-Sik Shin(csshin@dju.kr)

요약

본 연구는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과 대전지역의 군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최종 453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군 병사의 계급과 병과에 따른 대인관계능력과 군 생활적응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군 생활스트레스가 높으면 대인관계능력은 낮아지고 군 생활적응도 힘들어지며, 군 병사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군 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 중 개방성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를 조절하여 군 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 중 개방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군 병사 | 군 생활스트레스 | 군 생활적응 | 대인관계능력 | 조절효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in adapting military life and stress in the army. For this purpose, 453 soldiers in Chungnam and Daejeon were surveyed. First,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is the difference in interpersonal skills and group life adju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ank and class of the soldiers. Second, too much stress can cause difficulty to adapt military life and interpersonal skills. Also high interpersonal skills can help to adjust well to military life. Third, according to the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the openness in the sub-factors of military life and military life stress was effec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help control the stress of military life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 openness of interpersonal skills in order to increase the adaptability military life.

■ keyword : | Soldier | Military Life Stress | Adaptation of Military Life | Interpersonal Competence | Moderating Effects |

1. 서론

대한민국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병역법 제3조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성인 남자에게 군 복무의 의무를 부여한다.

군 입대 병사들의 연령 평균은 19세에서 25세로 빠르게 변화되는 세계화와 산업화를 통해 핵가족화와 되고 인터넷의 가상공간을 통해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거부감이 없는 세대로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자신을 표현하는데 다소 자유로운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1]. 이러한 성향은 군 입대 병사들은 통제된 계급 사회인 군 생활의 적응에서 상하계급간의 갈등과 업무에 따른 갈등, 집단생활과 제한된 자유에 대한 갈등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낳을 수 있게 된다. 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직무의 조건과 인지도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도 하여 구성원들의 특성과 인지하는 정도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2].

군 병사들은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갈등을 비롯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과 자살충동 등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은 군 병사에게 우울감과 절망감을 주고 자기를 비하하며 무기력함과 같은 정신건강을 해치는 군 생활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하였다[3][4]. 군 병사들이 군 입대기간 사회와 단절된 부대 생활로 외부와의 접촉 빈도도 적어진다.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군부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입대 전의 사회생활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한다[5][6].

최근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대학생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생활수준도 풍요로움을 경험한 세대로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군 병사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군 입대 병사들은 기존의 행동규범을 부정하거나 행동의 예측이 곤란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탈 권유와 조직화된 군 생활에서 벗어나려하거

나 저항과 변화를 추구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7]. 최근 입대하는 병사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영상의 세대로 인터넷과 스마트 폰, 온라인 게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Facebook,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세대이다. 사회관계망이 또 다른 세대로 자유로운 소통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익숙해 있던 상태에서 군이라는 조직화된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보인다[8-11].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인 1953년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상태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전의 상태가 60년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6·25전쟁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를 넘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인식 될 만큼 관념 속에서 막연히 존재하고 있다. 2014년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병무청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해외유학생의 수가 무려 3천4백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을 보아도 2009년에 3천745명, 2010년 4천174명, 2011년 3천470명, 2012년 2천842명, 2013년 3천75명으로 평균 3천461명에 이르고 있다[12]. 군 입대 병사의 발달단계상 후기청소년기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발달과업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식이나 발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스트레스에 대해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13][14].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을 개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15].

최근 2014년 22사단 GOP(General Out Post, 일반전초) 부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이 제도의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방부는 보호 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된다는 시각이 강했고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보호 관심병사를 과도하게 분류해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 가정, 경제적 빈곤자, 전입 100일 미만자 등을 보호 관심병사 분류 기준에 포함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파

돌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3개 등급으로 분류하던 제도를 '도움', '배려' 등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관리한다고 한다. 폭력이나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 배려 그룹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개인 신상 비밀 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안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다. 2014년12월31일 기준으로 보호·관심병사는 A급 8천433명, B급 2만4천757명, C급 6만2천891명 등이다[16].

군대 내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여러 경로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군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스트레스와 병사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활동도 이와 연관이 있는 위원회로 인권이 보장된 병영을 만들고 안전하고 행복한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4년 8월에 출범하였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기강,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병영 등 5대 중점과제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권고 하였다[17].

국방부는 2015년 2월16일 병사 인권 침해라는 등의 지적을 받는 보호 관심병사 관리 제도라는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보호 관심병사라는 용어는 지난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국방부는 2011년 보호·관심병사 분류 기준을 설정해 전군에 적용해 시행해 오고 있었다. 보호 관심병사 관리제도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A급(특별관리), B급(중점관리), C급(기본관리)등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최근 군에서는 군 생활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고 군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이나 경력이 복부기간동안 단절되는 군 병사들에게 자기개발의 기

회의 여건을 확대하고 학점의 취득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등 군 복지지원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군 병사들의 군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을 적절히 조절하고 극복하여 성공적인 군 생활을 하거나 군 생활 중 적성에 잘 맞다고 느껴 직업으로서 군인을 바라보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군이라는 특성상 군 생활 스트레스는 발생하겠지만 적절한 통제와 대처로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18].

이러한 여러 가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전 다양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던 군 병사들에게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군 생활 스트레스의 효율적인 관리는 군 생활에 적응을 도울 것이다 [19]. 군 생활의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는 병사들처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군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적절하고 충분한 대인관계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나 동료 선임병과 후임병간의 사고 및 정서를 이해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군생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군 병사들이 군 위계질서를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여 상관과의 관계를 명령과 지시를 통해서만 관계를 유지하는 비인간적인 대상으로만 본다거나 선임병은 후임병을 지적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하여 기피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군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군 병사들의 지나친 자기의 권리주장 및 불쾌한 감정의 과한 표현 등으로 부적절한 대인관계능력의 발휘는 오히려 군 생활의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군 병사 개인이 군 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대인관계능력을 개발하여 적절하게 발휘한다면 군 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이 감소되고 조절되어 소외감이나 문제점이 최소화되어 군 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20].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해 대인관계능력을 함

계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여서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군 사회복지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남과 대전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 병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군부대의 보안과 기밀누설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먼저 사전조사를 통해 문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쳤고, 2015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10명의 군 병사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 보완 된 설문지를 2015년 2월 20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 총 510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에 회수된 466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분석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3부를 제외한 45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의 계급과 병과에 따라 군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군 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가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능력이 군 병사의 현실적인 과제인 군 생활적응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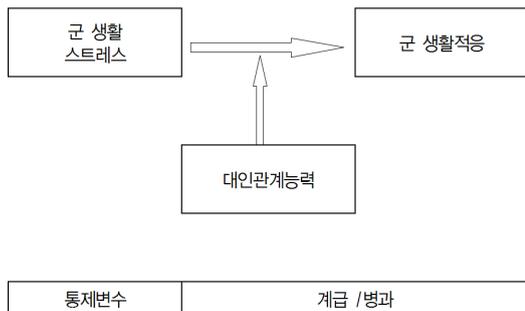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조사도구

3.1 군 생활스트레스

군 생활스트레스는 군 병사가 병영생활 중 겪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 내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군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개발한 도구 중 20개 문항을 추출하여 군 생활스트레스 질문지를 구성하였다[21]. 이것은 직무스트레스 5문항, 역할스트레스 5문항, 구성원 상호작용 스트레스 5문항, 군 외부 스트레스 5문항으로 4개 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군 생활스트레스 경험 유무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는 .947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직무스트레스는 (a= .840), 역할스트레스는 (a= .868), 구성원 상호작용 관계스트레스 (a= .811), 그리고 군 외부 스트레스는 (a= .836)로 각각 나타났다.

3.2 대인관계능력

군 병사의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관계성 변화 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대인관계능력 검사를 사용한 척도로 사용 하였다[22]. 본 연구의 대인관계능력 하위영역은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으로 7개 영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대인관계능력의 Cronbach’s a는 .963이고, 하위요인은 만족감 (a= .905), 의사소통 (a= .824), 신뢰감 (a= .782), 친근감(a= .788), 민감성(a= .548), 개방성 (a= .857), 이해성(a= .852)로 각각 나타났다.

3.3 군 생활적응

군 병사의 군 생활적응은 신태수(1981)와 구승신(2004)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된 척도를 강지연(201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3-25]. 본 연구의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은 심신안정 5문항, 임무수행의지 5문항, 직책과 직무만족 5문항, 군조 직 환경에 대한대도

10문항으로 4개 영역의 총 2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군 생활적응은 Cronbach's a는 .934 이고, 하위요인은 심신안정 (a= .899), 임무수행의지 (a= .817), 직책과 직무수행 (a= .883),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a= .810)로 각각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 하고,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Cronbach's a)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들에서 계급차이, 병과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 및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특성

1.1 계급에 따른 군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군 생활적응의 차이

계급에 따라 군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군 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하위 영역별로 결과는 [표 1]과 같다.

계급에 따른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의 평균 차이 확인 결과 일병이 3.68로 가장 높았고, 이병 3.64, 상병 3.51, 병장 3.43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2.788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아 계급에 따라 직책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병장 문항과 이병, 일병 문항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족감에 대한 계급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병 문항이 4.21로 가장 높았고, 병장 문항 4.08, 상병 문항 4.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병 문항이 3.93으로 가장 적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2.628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계급에 따라 만족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병 문항과 일병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의사소통에 대한 계급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

표 1. 계급에 따른 군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군생활적응의 차이

		이병 (N=133)	일병 (N=104)	상병 (N=119)	병장 (N=97)	F	Duncan
		M(SD)	M(SD)	M(SD)	M(SD)		
군 생활 적응	직책과 직무만족	3.66(0.887)ab	3.83(0.921)b	3.60(0.957)ab	3.44(1.093)a	2.828*	a<b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3.64(0.659)b	3.68(0.729)b	3.51(0.695)ab	3.43(0.737)a	2.788*	a<b
대인관계능력	만족감	3.93(0.784)a	4.21(0.741)b	4.05(0.821)ab	4.08(0.725)ab	2.628*	a<b
	의사소통	3.65(0.754)a	4.00(0.719)b	3.82(0.823)ab	3.93(0.700)b	4.889**	a<b
	신뢰감	3.62(0.697)a	3.99(0.800)b	3.80(0.787)ab	3.89(0.712)b	5.371***	a<b
	친근감	3.83(0.682)a	4.19(0.740)c	3.99(0.779)ab	4.07(0.670)bc	5.005**	a<b<c
	민감성	3.50(0.772)a	3.88(0.784)b	3.77(0.838)b	3.84(0.772)b	5.869***	a<b
	개방성	3.56(0.787)a	3.97(0.693)b	3.85(0.733)b	3.92(0.751)b	7.581***	a<b
	이해성	3.82(0.721)a	4.11(0.733)b	3.93(0.754)ab	4.08(0.711)b	3.938**	a<b

*p<.05 **p<.01 ***p<.001

병 문항이 4.00으로 가장 높았고, 병장 문항 3.93, 상병 문항 3.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병 문항이 3.65로 가장 적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4.889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계급에 따라 의사소통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병 문항과 일병, 병장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신뢰감에 대한 계급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병 문항이 3.99로 가장 높았고, 병장 문항 3.89, 상병 문항 3.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병 문항이 3.62로 가장 적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5.371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계급에 따라 신뢰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병 문항과 일병, 병장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친근감에 대한 계급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병 문항이 4.19로 가장 높았고, 병장 문항 4.07, 상병 문항 3.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병 문항이 3.83으로 가장 적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5.005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계급에 따라 친근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병 문항과 일병 문항 두 집단에서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민감성에 대한 계급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병 문항이 3.88로 가장 높았고, 병장 문항 3.84, 상병 문항 3.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병 문항이 3.50으로 가장 적

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5.869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계급에 따라 민감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병 문항과 일병, 상병, 병장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개방성에 대한 계급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병 문항이 3.97로 가장 높았고, 병장 문항 3.92, 상병 문항 3.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병 문항이 3.56으로 가장 적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7.581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계급에 따라 개방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병 문항과 일병, 상병, 병장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이해성에 대한 계급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병 문항이 4.11로 가장 높았고, 병장 문항 4.08, 상병 문항 3.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병 문항이 3.82로 가장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3.938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계급에 따라 이해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병 문항과 일병, 병장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1.2 병과에 따른 군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군 생활적응의 차이

병과에 따라 군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군 생

표 2. 병과에 따른 군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군생활적응의 차이

		전투병과	(N=108)	행정병과	F	Duncan
		(N=119)	(M(SD))	(N=226)		
군 생활 적응	심신안정	3.75(0.927)b	3.52(0.686)a	3.91(0.855)b	7.777***	a(b)
	의사소통	3.81(0.848)ab	3.68(0.717)a	3.92(0.729)b	3.694*	a(b)
	신뢰감	3.78(0.843)ab	3.64(0.677)a	3.91(0.738)b	4.916**	a(b)
대인관계능력	친근감	4.00(0.804)ab	3.83(0.653)a	4.09(0.711)b	4.666**	a(b)
	민감성	3.66(0.863)ab	3.60(0.772)a	3.83(0.779)b	3.819*	a(b)
	개방성	3.82(0.774)	3.55(0.716)	3.93(0.748)	9.036***	a(b)

*p<.05 **p<.01 ***p<.001

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하위 영역별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병과에 대한 군 생활 적응 하위요인 차이검정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병과에 따른 심신안정의 평균 차이 확인 결과 행정병과가 3.91로 가장 높았고, 전투병과 3.75, 기술병과 3.5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7.777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아 병과에 따라 심신안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술병과와 전투병과, 행정병과 문항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한 병과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행정병과 문항의 평균이 3.92로 가장 높았고, 전투병과 문항 3.81, 기술병과 3.68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3.694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병과에 따라 의사소통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술병과 문항과 행정병과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신뢰감에 대한 병과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행정병과 문항의 평균이 3.91로 가장 높았고, 전투병과 문항 3.78, 기술병과 3.64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4.916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병과에 따라 신뢰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술병과 문항과 행정병과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친근감에 대한 병과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행정병과 문항의 평균이 4.09로 가장 높았고, 전투병과 문항 4.00, 기술병과 3.83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4.666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병과에 따라 친근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술병과 문항과 행정병과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민감성에 대한 병과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행정병과 문항의 평균이 3.83로 가장 높았고, 전투병과 문항 3.66, 기술병과 3.60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3.819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병과에 따라 민감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술병과 문항과 행정병과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개방성에 대한 병과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행정병과 문항의 평균이 3.93로 가장 높았고, 전투병과 문항 3.82, 기술병과 3.55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정한 결과 F값이 9.036 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아 병과에 따라 개방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술병과 문항과 전투병과, 행정병과 문항 두 집단으로 나뉘어 평균의 차이가 확인 되었다.

2. 군 생활스트레스, 군 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는

표 3.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군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a	1							
b	.597**	1						
c	.666**	.581**	1					
d	.696**	.609**	.723**	1				
e	-.481**	-.236**	-.375**	-.430**	1			
f	-.541**	-.322**	-.490**	-.556**	.784**	1		
g	-.516**	-.269**	-.405**	-.487**	.736**	.816**	1	
h	-.488**	-.272**	-.374**	-.450**	.722**	.809**	.760**	1

a. 심신안정 b. 임무수행의지 c. 직책과 직무만족 d. 환경에 대한 태도 e. 직무스트레스 f. 역할스트레스 g. 상호작용 관계 스트레스 h. 군 외부 스트레스

*p<.05 **p<.01 ***p<.001

력 및 군생활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및 군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심신안정의 경우 직무스트레스($r=-.481, p<0.01$), 역할스트레스($r=-.541, p<0.01$), 상호작용 관계 스트레스($r=-.516, p<0.01$), 군 외부 스트레스($r=-.488, p<0.01$)에 대해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임무수행 의지의 경우 직무스트레스($r=-.236, p<0.01$), 역할스트레스($r=-.322, p<0.01$), 상호작용 관계 스트레스($r=-.269, p<0.01$), 군 외부 스트레스($r=-.272, p<0.01$)에 대해 비교적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직책과 직무만족의 경우 직무스트레스($r=-.375, p<0.01$), 역할스트레스($r=-.490, p<0.01$), 상호작용 관계 스트레스($r=-.405, p<0.01$), 군 외부 스트레스($r=-.374, p<0.01$)에 대해 동일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환경에 대한 태도의 경우 직무스트레스($r=-.430, p<0.01$), 역할스트레스($r=-.556, p<0.01$), 상호작용 관계 스트레스($r=-.487, p<0.01$), 군 외부스트레스($r=-.450, p<0.01$)에 대해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군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및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심신안정의 경우 만족감($r=.600, p<0.01$), 의사소통($r=.602, p<0.01$), 신뢰감($r=.543, p<0.01$), 친근감($r=.632, p<0.01$), 민감성($r=.371, p<0.01$), 개방성($r=.620, p<0.01$), 이해성($r=.594, p<0.01$)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임무수행 의지의 경우 만족감($r=.315, p<0.01$), 의사소통($r=.374, p<0.01$), 신뢰감($r=.328, p<0.01$), 친근감($r=.313, p<0.01$), 민감성($r=.262, p<0.01$), 개방성($r=.379, p<0.01$), 이해성($r=.353, p<0.01$)에 대해 비교적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직책과 직무만족의 경우 만족감($r=.478, p<0.01$), 의사소통($r=.457, p<0.01$), 신뢰감($r=.381, p<0.01$), 친근감($r=.454, p<0.01$), 민감성($r=.206, p<0.01$), 개방성($r=.433, p<0.01$), 이해성($r=.430, p<0.01$)에 대해 동일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환경에 대한 태도의 경우 만족감($r=.489, p<0.01$), 의사소통($r=.503, p<0.01$), 신뢰감($r=.402, p<0.01$), 친근감($r=.521, p<0.01$), 민감성($r=.265, p<0.01$), 개방성($r=.466, p<0.01$), 이해성($r=.476, p<0.01$)에 대해 마찬가지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 또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의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군 생활 스트레스의 경우 대인관계

표 4.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i	j	k
a	1										
b	.597**	1									
c	.666**	.581**	1								
d	.696**	.609**	.723**	1							
e	.600**	.315**	.478**	.489**	1						
f	.602**	.374**	.457**	.503**	.731**	1					
g	.543**	.328**	.381**	.402**	.639**	.760**	1				
h	.632**	.313**	.454**	.521**	.789**	.819**	.747**	1			
i	.371**	.262**	.206**	.265**	.513**	.584**	.521**	.568**	1		
j	.620**	.379**	.433**	.466**	.700**	.839**	.757**	.784**	.568**	1	
k	.594**	.353**	.430**	.476**	.738**	.841**	.735**	.804**	.669**	.829**	1

a.심신안정 b.임무수행의지 c.직책과 직무만족 d.환경에 대한 태도 e.만족감 f.의사소통 g.신뢰감 h.친근감 i.민감성 j.개방성 k.이해성
* $p<.05$ ** $p<.01$ *** $p<.001$

능력($r=-.501, p<0.01$), 상호작용항(군 생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r=-.104, p<0.05$)에 대해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 되었고, 대인관계능력의 경우 상호작용항(군 생활 스트레스*대인관계능력) ($r=.109, p<0.05$)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표 5.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 상호작용항의 상관관계

	군 생활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군 생활 스트레스 * 대인관계능력
군 생활 스트레스	1		
대인관계능력	-.501**	1	
군 생활 스트레스 * 대인관계능력	-.104*	.109*	1

3.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능력의 조절효과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계급과 병과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뒤, 조절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인과 군 생활스트레스, 조절변수만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Model 1) 군 생활스트레스와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는(Model 2)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인관계능력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평균 중심화를 하였다. 독립변수(군 생활 스트레스)가 종속변수(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대인관계능력)검증을 위해 3단계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회귀모형의 F값은 185.796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 제곱 값이 .292로 회귀식에 대한 29.2%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결과적으로 군 생활 스트레스($B=-.511, p<0.001$)는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응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군 생활 적응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변수와 조절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회귀모형의 F값은 168.886이고,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 제곱 값이 .429로 회귀식에 대한 42.9%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두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동일하게 1.334로 다중공선성

표 6.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단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B		
군 생활 적응	1단계	(상수)	3.518	.028		124.095***	
		군 생활 스트레스	-.511	.037	-.540	-13.608***	
		$R^2 = .292, \text{ adjusted } R^2 = .290, F = 185.165^{***}$					
	2단계	(상수)	3.518	.025		138.104***	
		군 생활 스트레스	-.308	.039	-.325	-7.899***	1.334
		대인관계능력	.459	.044	.429	10.412***	1.334
	$R^2 = .429, \text{ adjusted } R^2 = .427, F = 168.886^{***}$						
	3단계	(상수)	3.540	.027		129.739***	
		군 생활 스트레스	-.303	.039	-.320	-7.795***	1.339
		대인관계능력	.452	.044	.423	10.286***	1.340
		군 생활 스트레스 * 대인관계능력	.088	.040	.079	2.197*	1.015
	$R^2 = .435, \text{ adjusted } R^2 = .432, F = 115.160^{***}$						

* $p<.05$ ** $p<.01$ *** $p<.001$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군 생활스트레스($B=-.303, p<0.001$)와 대인관계능력($B=.452, p<0.001$)은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응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군 생활 스트레스*대인관계능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회귀모형의 F값은 115.160이고,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보다 작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 제곱 값이 .432로 회귀식에 대한 43.2%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투입된 세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값이 각각 1.339, 1.340, 1.015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 했다. 결과적으로 군 생활 스트레스($B=-.303, p<0.001$)와 대인관계능력($B=.452, p<0.001$) 그리고 상호작용항($B=.088, p<0.05$)은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응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단계에서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3단계의 설명력이 .435로 1단계와 2단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에서의 적응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군 생활스트레스 상황 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군 병사의 대인관계능력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전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 병과에 따른 군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 능력, 군 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군 생활 스트레스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인관계 능력과 군 생활적응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군 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 간에는 부적상관을 보여 군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군 생활적응이 힘들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군 생활스트레스가 적은 군 병사들이 군 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구승신(2006)의 연구와 일치하며[3], 군 생활스트레스는 군 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총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을 가진다[26].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역할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 하위요인인 환경에 대한 태도에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여 군 생활스트레스에서 역할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일 경우 군 생활적응에서 환경에 대한 태도의 적응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군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 간에는 부적상관을 보여 군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문제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와도 일치 한다[25].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역할스트레스와 환경에 대한태도가 가장 큰 부적상관을 보여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군 생활적응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 병사의 대인관계능력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군 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중 친근감과 군 생활 만족의 하위요인 중 심신안정이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군 생활의 적응을 위해서는 심신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군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27],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있어 군 내부의 대인관계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5][28]. 이러한 결과는 군 생활스트레스가 높으면 대인관계능력은 낮아지고 군 생활적응은 힘들어지지만, 군 생활스트레스가 높더라도 변화하는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으면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군 생활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사이에서 대인 관계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군 생활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응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군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은 종속변수인 군 생활적응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군 생활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대인관계능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1단계와 2단계보다 더 설명력 있는 결과와 군 생활 스트레스가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군 생활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로 대인관계 능력 하위요인을 검증한 결과 개방성요인에서 조절효과와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 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군 생활 스트레스는 병사의 계급과 병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병영문화의 혁신으로 개선되어지는 군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예측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연구를 위해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다양한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군 생활적응에 필요한 문제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 병사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군 생활스트레스가 조절되어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적응의 문제에 자격요건을 강화한 군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가기를 제언 한다.

참 고 문 헌

[1] 최은진,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의 중재효과,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 C. L. Cooper, "Identifying stressors and work: Recent research developmen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37, pp.369-376, 1983.
- [3] 구승신, "신세대 병사의 정신건강 실태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육군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4권, pp.64-93, 2006.
- [4] 한인영, 구승신, "군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 중독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 심리적 취약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314-322, 2012.
- [5] 박현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6] 유혜경, *병사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7] 손희락, *신세대 장병의 스트레스가 부대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8] 진석범,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9] 김완일, *군상담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 [10] 김정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한 개인역량과 사회적관망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11] 권세기, *G세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2]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국감자료*, 2014.
- [13] 현명선, 정향인, 강희선, "군인들의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05-312, 2009.
- [14] 엄덕희,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5]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Co., 1984.
- [16] 국방부, *국방부 보도자료*, 2015. 2. 16.
- [17] 국방부, *국방부 보도자료*, 2014. 12. 18.

- [18] 성현주, *군 생활스트레스와 상담욕구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19] 이태우, *신세대 장병의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0] 정영제, *가정·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대인관계능력, 자아탄력성의 영향 구조 분석*,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21] 한국생산성본부, *산업인력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평가*, 1993.
- [22] S. P. Schiein and B. G. Guerne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23] 구승신,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24] 신태수, *군대조직 구성원의 자아정체감과 군 생활에 적응과의 연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25] 강지연,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분노표현 및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6] 이대식, *육군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서울벤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27] 고기숙, 정미경, “현역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 우울과 군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1권, 제12호, pp.294-306, 2011.
- [28] 강준기, *군 병사의 내현적 자기애와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저 자 소 개

김 세 원(Se-Won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대전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9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 수료)
- 2013년 9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상담, 청소년문화복지, 군사회복지

신 창 식(Chang-Sik Shin)

정회원



- 1995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4년 10월 : 영국 노팅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사례관리, 사회복지프로그램